

사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언제나 빛이 이겼다. 누구나 빛을 원한다. 하지만 원한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노력한 만큼 주어지기 때문이다. 캄캄한 밤에 성냥불을 켜면 그 불빛만큼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도 역시 자신이 빛어내는 것만큼만 얻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자동차를 몰고 달려보면 언제나 헤드라이트 불빛만큼만 주변이 환하다. 그 이상의 빛을 요구해야만 결코 얻을 수 없다. 더 언더려면 빛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게 되면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선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선택 결정을 못한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음식물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요다. 하지만 병마는 훨씬 더 많다. 그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조절능력 부족이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도 섭취하면 그만 큼 운동 등을 통해서 소모해야 한다. 물론 한계선을 넘는 운동은 독약이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빛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진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가 한 말은 반복된 단 세 마디였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었는데도.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중절모와 두꺼운 코트의 노신사. 졸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연료하고 약간은 지쳐 보이는 듯한 그는 당당하고 뜻뜻하게 섰다. 약 1분 동안 청중들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Never Give Up!(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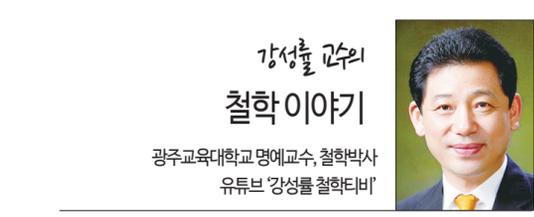
청중들은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약 40여초 동안 청중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다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 이때 청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학교, 성당, 집 등을 폭격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침묵 속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노 정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모자와 코트를 집어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청중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이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 송 암 발행인 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흔히 알고 있듯이, 교수라는 직업에는 돈과 명예가 따른다. 물론 때론 벌거나 대단한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 받지 않을 정도의 봉급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대우가 보장된다. 거기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강연장, 저서)도 주어진다. 그 때문인지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아예 이 자리를 거절한 철학자가 있었다니, 과연 그가 누구일까?

그는 바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스피노자(1632년~1677년, 네덜란드 출신)이다. 너무나 유명한 그의 긍정적 발언과는 반대로, 그 인생은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 교회로부터 온갖 저주와 함께 추방령을 선고받는다. “천사들의 결의와 성인(聖人)의 판결에 따라,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제방하여 추방한다. 어느 누구도 말이나 글로써 그와 교제하지 말 것이며, 그에게 호의(好意)를 보여서도 안 되며, 그가 저술한 책을 읽어서도 안 되느니라.”

이러하여 스피노자는 모든 명예와 부



강성호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호 철학TV'

철학자들의 고집(10) 교수직마저 거절하다-스피노자

권위를 물리치면서 더 치열하게, 오히려 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1675년 필생의 저작인 『윤리학』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생전에 출판하지 못하였다. 스무 살 때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스승의 딸과 사랑하게 되었지만, 다른 구혼자의 값비싼 선물을 받은 그녀는 스피노자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이 충격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는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독한 생애를 보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조차 그를 멀리하였으며, 어디를 가건 셋방조차 빌려주지 않았다. 다행히 동정심 많은 한 사람을 만나 지붕 밑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살게 되었지만.

스피노자는 떳떳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 시절 배워둔 안경렌즈 닦는 일로 생계를 이어 나갔다. 스피노자의 책들은 출간되는 즉시 금지도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도리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격려의 편지와 함께 생활비가 보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부분은 거절하였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다름에 나올 저서를 자기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거액의 연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역시 정중히 사양하였다. 마침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정교수 자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학생들을 가르

치는 데 몰두하자면, 저 자신의 철학 연구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하는 자유를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역시 거절한다.

물론 여기에는 안경렌즈 닦는 기술을 습득해 놓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의 생활이 풍족했던 것은 아니다. 너무나 어려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기부금을 주어 돕겠다고 하였지만, 스피노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만 받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도 조금 다른 설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와 지지자들이 제공하는 돈은 연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심한 가난에는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야 어쨌든, 렌즈 손질의 직업이 마침내 스피노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고야 말았다. 먼지투성이의 작업장이 그에게 폐병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박물관에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요한 사색의 삶은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고독하게 마감되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셨나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는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지

금까지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꾸준히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 많은 주택에 설치되었고, 또 되고 있으나, “모든 주택에 설치가 완료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순 없었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 정도이지

만,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약 46%, 즉 절반에 가깝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작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 감소했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10%나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소방서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SNS 활용, 다중이용시설 현장 홍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로부터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방펌프차’ 역할을 하는 ‘작은 소방서’이다. 장흥소방서 정남진안전센터 소방장 박준희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음력 3월 10일)

48년생 곰작정이 당했던 부진을 벗어난다. 60년생 수지맞은 정사 지갑이 든든해진다. 72년생 관해 하는 허세 모양만 빠져간다. 84년생 출세와 명예비대웃이 걸친다. 96년생 남의 힘을 빌려야 쉽고 편하게 간다.
49년생 미루고 있던 시작 출발선에 서보자. 61년생 술한 잔 생각하는 경사를 맞이한다. 73년생 곳은 일 마다 하면 흥이 걸려진다. 85년생 시끄러운 지리 피하고 도망가자. 97년생 백점이 아니라 인조를 가져보자.
50년생 감정의 쪼개기 지우개로 지워진다. 62년생 줄거는 상상이 현실이 되어간다. 74년생 훌륭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6년생 단단했던 결심 완성이 보여진다. 98년생 성공한 기대 걸것국을 마셔야 한다.
51년생 하늘의 별을 세고 여유다시 하자. 63년생 가슴 뛰는 순간 그림으로 그려보자. 75년생 이해의 폭 바다처럼 넓어진다. 87년생 타당한 근거치선으로 돌아서자. 99년생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52년생 근사하고 맛있는 상을 받아보자. 64년생 일곱 빛깔 무지개 행복이 함께 한다. 76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임을 알아내자. 88년생 헤어짐의 수순 미련 남기지 마라. 00년생 틀을 거리는 불만 위로받지 못한다.
53년생 다정다감 이웃이 급한 불을 꺼준다. 65년생 선물은 한 보따리 기본이 날아간다. 77년생 건달인지 농담인지 선을 그려내자. 89년생 언짢리는 의견머리를 갖대보자. 01년생 허를 찌르는 사이도 비밀을 가져보자.
54년생 여전히 스승 가르침을 귀야 한다. 66년생 미워할 수 없으면 품으로 안아주자. 78년생 만만치 않았던 무게 한결 가벼워진다. 90년생 편지 모를 살림가대심이 커져 간다. 02년생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다시 하자.
55년생 맞다 하는 확인 앞만 보고 달려가자. 67년생 두 말 하는 약속 관심에서 지워진다. 89년생 지친 하는 방식 악으로 못 고쳐다. 91년생 불안한 이인보다 마음을 편히 하자. 03년생 관심과 배려에 보란듯이 답해주자.
56년생 살지 않는 선택 저울질을 더해보자. 68년생 잠조차 잊혀지는 기쁨에 빠져보자. 80년생 인상은 후하게 담기지 않아주자. 92년생 만능을 쫓고 아쉬움은 깊어진다. 04년생 흐려있던 기분 맑음으로 변해간다.
57년생 허수사 했던 우려 바람에 실려간다. 69년생 귀해진 대접에도 초심을 기억하자. 81년생 달리 없는 방법 열심하 담 홀리자. 93년생 고개 속 이는 결심 짐수를 크게 한다. 05년생 용감하고 기운찬 모습만 보여주자.
58년생 막막했던 기다림 끝이 보여진다. 70년생 혼자만의 시간 소중히 써야 한다. 82년생 웃음이 절로 나는 소식을 들려보자. 94년생 꺼져가던 희망에 불씨가 피어난다. 06년생 언제 오나 기다린 재능을 들어보자.
59년생 기본 좋은 호사 신년놀음 해보자. 59년생 어떤 시련에도 포기금물이다. 71년생 이만큼 잘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 83년생 운영적 인 만남 사람으로 이어진다. 95년생 기호에 충실한 모범생이 되어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